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10월 / 통권 500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003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004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 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필만대장경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오색단풍(五色丹楓) / 무경스님

설담장학회 · 봉정암 참배안내 · 12

대광사 10월 법회 및 행사 · 13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소원성취다라니 108독 기도
중구절(음)9월 9일 합동제사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대광사 템플스테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팔만대장경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흔히 부처님 말씀 전부를 통털어 '팔만대장경' 혹은 '팔만 사천 장경'이라 한다.

인도인들이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단위로 팔만 사천이라는 수를 쓰기도하는 데 부처님 말씀이 워낙 방대하기에 이 숫자 단위를 빌려 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보물이라 할 수 있는 해인사의 팔만 대장경 경판 숫자가 '팔만 사천여장'이라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최고의 단위 수에 맞춰 기획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몽고와 거란의 침략을 당해 극심한 핍박과 수탈에 시달리던 고려인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어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조성 제작했다.

어려움에 처할 수록 국민의 합심이 필요하고 하나로 모아진 힘이 필요했다. 대장경의 조성작업은 대몽항쟁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작업이었으며 최선의 노력이었다.

대장경은 부처님 가르치심을 집대성한 일종의 모음 전집이다. 대장경이 만들어질 당시까지의 경전과 논서와 율서와 해설집을 총망라한 집성본이다.

고려 현종 2년(1011)에 처음 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송나라와 거란에서 대장경을 만들어 국가의 문화 발전과 불교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을 본받아서다.

거란의 계속된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여 대장경 간행이 처음 시작되었다.

76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대장경 조성작업은 1087(선종 4)에 6천여 권 분량으로 완성을 보게 되는데. 이를 초조대장경이라 한다.

그러나 초조대장경은 불행하게도 1232년(고종19)에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만다.



이미 앞에서 대장경 조성의 기술과 원력을 축적한 바 있는 고려인들은 국가와 백성이 뜻을 하나로 하여 몽고를 물리치고 자주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다시 대장경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오히려 앞서보다 더 많은 경전을 수집하고 더 나은 기술력으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완벽한 장경을 완성하여 불전에 공양 드리게 된다.

국가의 위상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강화도 천도의 풍전 등화의 위기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했다.

몽고의 눈길을 피해 무려 15년에 걸친 노력 끝에 1.251년(고종38) 9월에 완성을 보게 된다.

이를 고려에서 2번째로 만든 대장경이라서 '재조대장경'이라 한다. 즉 두 번째 대장경이란 말이다.

놀라운 것은 팔만여 장이 넘는 판각 수인데도 오자 탈자가 하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많은 수의 글이 한 사람이 쓴 것같이 하나의 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고려의 사경승들 사경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각 나라에서 수없이 초청하고 특채해 모셔가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경판을 가져가기 위해 임진란 때에 유난히 눈독을 들이기도 했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여러 방법을 써서 가져가려 했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선조들 유산을 지키기 위한 뛰어난 기지로 인해서다.

육이오 당시 미군이 해인사를 포격하라고 공군에 지시했지만, 국군 파일럿이 끝내 듣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기도 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조들 유산을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 지켜야 한다.

해마다 해인사에선 경판을 바람 쏘이고 국민들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경판 이운식이 열리기도 한다.

오색단풍 (五色丹楓)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다. 가을이다. 무거웠던 공기는 가벼워져 들숨날숨 편안하고, 푸르른 창공을 보노라면 출가자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인다.

대광사의 가을은 제법 낭만적이다. 온화한 달빛에 밤그늘 드리워지면 장막 뒤 귀뚜라미는 합창을 시작한다. 장단과 음정 모두 제멋대로지만 어느 한 소절 귀에 거슬리지 않아 자장가로 그만이다.

사뿐히 내려앉은 가을 아침 햇살은 자연스레 발걸음을 대웅전 앞마당으로 이끌고, 선선한 바람에 등 떠밀려 주위를 배회하다

보면, 노랑색 국화 꽃도 보고, 붉은 빛 상사화도 보고, 평소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참새며 까마귀며 고양이와도 어색하게 아는 체를 해본다. 가을 특유의 정서는 사람의 마음도 산짐승의 마음도 방심케 하나 보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교하면, 풋풋한 생기가 피어나는 봄은 청년기에, 왕성한 활력으로 충만한 여름은 장년기에, 오색으로 멋이 드는 가을은 중년기에, 가진 것을 내려놓은 겨울은 노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인도 종교인들은 사계절처럼 인생을 4주기로 나누어 생활했다. 학습기(學習期:1세~20세)에는 스승으로부터 경전 속 진리를 배웠고, 거주기(家住期:21세~40세)에는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가 임서기(臨棲期:41세~60세)가 되면 집에서 나와 수행자의 삶과 명상법을 익혔고, 유행기(遊行期:61세~80세)에는 구름처럼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며 명상에 전념하고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면 가을은 인생의 4계절 중 멋이 들어가는 중년기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임서기인 셈이다.

필자 역시 이번 가을과 함께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멋으로 물들어간다는 불혹(不惑)에 들어섰다, 당장 사회적 성공이나 잘

먹고 잘 살 고민은 제쳐두더라도, 40대부터는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나 인생의 남은 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매번 후회 없는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부쩍 공자(孔子)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세상 일에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경지를 나이 40에 이루었다니 말이다.

올바른 판단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입장차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필자의 경우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출가로 선택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후회한 적 없다.

다만 최근 들어서 앞으로 남은 40년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갈까? 고민했는데, 늦가을 단풍나무처럼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단풍나무는 가을이 깊어질수록 손끝에 붙든 잎사귀를 하나 둘 내려 놓기 시작한다. 자기가 내려 놓는 모든 것들이 추운 겨울 내 덮고 잘 두터운 이불이자 먹거리가 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성 다해 올리는 기도와 수행과 공부와 봉사와 같은 모든 좋은 일들도, 단풍나무의 오색낙엽처럼 추운 겨울을 따듯

하고 풍족하게 나기 위한 땀감이나 쟁겨놓은 양식과 같은 것이다. 즉 단풍나무 같은 삶이란 인생의 겨울철인 유행기를 대비하여 복을 많이 쌓는 것이다.

대광사에서는 다가오는 10월을 맞이하여, 관음기도 도량이자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설악산 봉정암 성지순례와 불가사의한 복덕을 쌓는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7일간 봉행할 예정이다.

수행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공부하게 좋은 이 낭만적인 계절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인생의 유행기와 극락기(極樂期:사후세계)를 대비하여 다함이 없는 복을 쌓으셨으면 좋겠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봉정암 참배 ※

- 2022년 10월 14일~15일(1박2일)
- 진해역 오전 5시 출발
- 동참금 : 13만원
- 선착순 : 40명





◎ 대광사 10월 법회 및 행사 ◎

- ◇ 10월 4일: 중구절합동제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0월 10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0월 23일: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입재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 10월 25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0월 27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0월 29일: 소원성취 다라니 108독 기도 회향
오후 1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소원성취다라니 108독 기도

- 일시 : 10월 23일~10월 29일 (7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중구절((음)9월9일) 합동제사

- 일시 :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대광후원회

(2022.8.18.~2022.9.17)

황두관 10,000	송성구 10,000	강성진 10,000	박진호 200,000
김경남 20,000	박미애 10,000	오현철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홍승운 20,000	김병문 20,000	배수진 30,000	쥬커벙클딩스 300,000
변창인 20,000	윤소영 20,000	조한분 50,000	
정진이 10,000	정대식 5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양재봉 1만원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 입 재 : 8월 9일 오전 10시
- 회 향 :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1인당 10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佛紀 2567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요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3년 2월 28일~3월 29일	2023. 4. 4(화) ~ 11. 29(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계일	2023년 4월 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 2023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